

[ 시티 & 피쳐 ]

과학고 가려고 중1때부터 철저히 준비 KAIST(56%)·서울대(15%) 진학희망

■광주·전남 과학고 신입생 설문조사

광주과학고와 전남과학고의 설립 목적은 과학영재 발굴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고급 과학인력 양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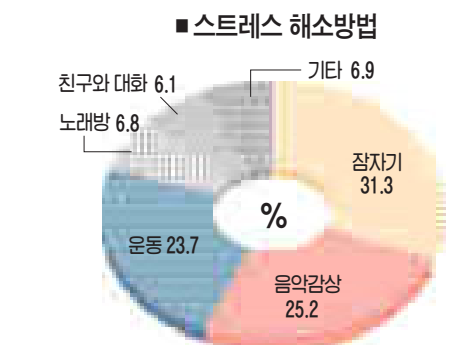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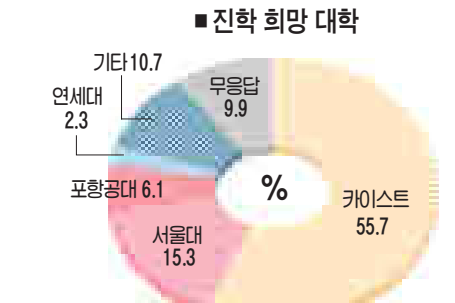
더욱이 9.9%(14명)는 아예 의사(12명)나 한의사(2명)가 꿈이라고 밝혔다. 광주과학고의 경우 61명 중 9명(14.8%), 전남과학고는 70명 중 5명(7.1%)으로 나타났다.

과학고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 과학영재를 골라 뽑기 위해 입학전형에서 아예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수학 및 과학 등의 성적이 석차 백분율 10% 이내인 학생

이 때문에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 진학 희망대학과 직업을 확고히 한 채 수학과 과학을 집중 공부하고 영재교육을 이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엔 잠자기·음악감상 '최고'

휴대폰·MP3 일반 고교생보다 적게 사용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는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광주과학고와 전남과학고 졸업생 135명 중 92.6%(125명)는 KIST(47명), 연세대(27명), 포항공과대(10명), 서울대(5명) 등 타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다.

전남대 공대에 진학한 학생은 2명에 불과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70명을 뽑은 전남과학고의 경우 5개 시 출신 학생이 75.7%(53명)에 달해 도·농간의 현저한 교육격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휴대전화 및 MP3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64.1%(84명)와 60.3%(79명)만이 갖고 있다고 응답. 일반 고교생(80~90%)에 비해 크게 적었다.

스트레스 해소방법(복수응답)으로는 잠자기 31.3%(41명), 음악감상 25.2%(33명), 운동 23.7%(31명) 등이었다.

/향태총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시 인구 늘었다

작년말 140만1,745명...전년보다 573명 증가 일자리 창출 영향...도청 이전 후폭풍은 '미미'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광역시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시의 인구는 소폭이나마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삼선전자 광주 이전과 제조업체 증가 등 꾸준한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2005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140만1천745명으로 지난 2004년말에 비해 573명(0.04%)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이후로 전남으로 급격한 인구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전명(-0.53%) 등이 각각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사실 광주시 인구가 조금이나마 늘어난 것은 작년 한해동안 1만3천427명이 출생한 데 반해, 5천829명이 사망해 7천598명이 늘어난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단순 계산을 넘어서 ▲도청이전으로 인한 인구 감소 ▲미시 취업·제조업체 증가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 인구 증가 원인을 찾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광주로 유입된 인구는 4만7천908명인데 반해, 광주에서 전남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4만3천828명이었다.

■인구증감률 비교

Table with 5 columns: 구분, 광주, 부산, 대구, 대전. Rows include 2004년, 2005년, 증감, 증감률(%)

(자료:광주시.단위:명)

2004년과 비교할 때 852명 증가하는 데 그쳐 인구증감률에 도청이전 후폭풍이 미미했음을 보여줬다.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수(2004년 기준)의 경우 광주는 9.56%의 증가율(2004년 기준)을 기록했으나, 부산은 -3.12%

15세 이상 취업자수도 광주는 2004년 60만4천명에서 2005년 61만9천명으로 2.53% 증가했으나, 부산은 0.72%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市, 식품업소 위생점검 19곳 적발...행정 처분

광주시는 "복합 음식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4월 시내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1천74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이중 19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신고 미 이행 등 12곳이 적발됐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5일간 대학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달 10일부터 2개월간 위생식품 특별단속 및 계절 성수식품을 단속할 예정이며 7월부터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또 한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환경청, 어린이 날 개방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신원우)은 '어린이 날'을 맞아 청사를 개방한다.

환경청은 이날 청사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각종 수집·대기 측정장비 등의 원리를 설명하고, 대기·토양 측정 이동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질 오염도 측정 과정을 견학시켜줄 예정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체험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는 환경청 지역협력과(062-605-5262)로 하면 된다.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 모델 확정

첨단지구에 지상 16층 규모 현대건설 컨소시엄서 시공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광주·전남합동청사 시공업체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시설계획을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주기관으로는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노동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보훈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광주출장소 ▲국립식물검역소 ▲광주출장소 ▲광주지방보건의료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9개소 5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게 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Living Guide) table with categories: 교통안내, 생활정보, 상점, and 신고 (New Arrivals).

영락공원 24시간 민원접수

광주시 제2시립묘역인 영락공원이 24시간 민원접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한 매장이나 화장 등을 하게 될 경우 광주시도시공사 영락공원팀(062-572-43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대인동실업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본.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원정대 대지 60평 4천200만 28억.

민음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매도. 첨단 쌍안동, 월계동, 삼현지역.

하이링크 컨설팅: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부동산 광고를 통해 매도를 원하시면 전화하십시오.

전원공인중개사: 토지매도. 광주 송정동 시랑평, 송정동 6차선 도로 50평 평당 300만원.

한 일 지도 (주):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 체크된 부분은 타사와 비교 환영.